

조도다이라의 습원

조도다이라 고원의 대부분은 습원이나 낙엽수와 상록수 혼합림으로 덮여 있고, 해발은 1,600m나 됩니다. 이곳 습지대는 철새나 희귀 아고산대 식물 등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기(6월 중순부터 7월 하순)에는 선명한 핑크색의 이와카가미(암매과의 상록 다년초)와 황새풀, 연보라색의 만병초 등의 들꽃이 여기저기에 만발합니다. 조도다이라 비지터 센터에서는 습원 주변으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자연 산책로가 나 있는데, 20분 코스부터 5시간 코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도다이라 습원

조도다이라 습원(해발 1,580m)에 생육하는 식생의 대부분은 1893년 잇사이교산 분화 후에 생긴 원시림입니다. 이끼와 아고산대 식물 외에도 잣나무 관목이 습원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철새가 습지를 서식지로 삼고, 일본 토끼나 일본 담비, 오코조 같은 동물을 1년 내내 볼 수 있습니다.

조도다이라 비지터 센터에서 시작되는 나무길 산책코스(약 20분)에서는 조도다이라 습원 고유의 식생과 생태계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휠체어로도 통행 가능합니다.

스가다이라 습원

가마누마 늪 북단부 부근에 있는 이 작은 습지대에는 다종다양한 아고산대 식물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보라색 꽃잎을 가진 원생의 심산용담(*Gentian anipponica*)이 일대에 꽃을 활짝 피웁니다. 스가다이라 습원(해발 1,766m)은 조도다이라 습원에서 약 4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우바가하라 습원

이곳 습지대에서는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에 걸쳐 황새풀이 흰색의 수풀을 형성하고, 연분홍의 일본 고산 벚나무가 만개합니다. 6월과 7월에는 작은 흰색 꽃잎을 가진 진구르마 꽃이 피고, 7월과 8월에는 들쭉나무가 연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가마누마 늪 남서쪽에는 우바가하라 습원(해발 1,778m), 북동쪽에는 스가다이라 습원이 있습니다. 조도다이라 비지터 센터에서 우바가하라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야지다이라 습원

이 고립된 습지대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구상나무(*Abies mariesii*) 원시림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풍부한 아고산대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가을에는 야지다이라의 풀이 오렌지빛과 황금빛으로 변해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야지다이라(해발 1,504m)까지의 하이킹은 우바가하라에서 기복이 심한 삼림 트레킹 코스를 지나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습지대를 도는 나무길까지의 경로에서는 강도 건너고, 일부에서는 바위에서 바위로 점프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기나 호우 후에는 물이 불어 건너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도다이라 비지터 센터에서 왕복 소요시간은 약 5시간이며, 경험자가 아니라면 추천할 수 없는 코스입니다.

케이바다이라 습원

히가시아즈마산(해발 1,975m)에서 흐르는 지하수의 영양분으로 케이바다이라 습원(해발 1,690m)에는 다양한 종류의 원생 아고산대 식물이 우거져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다양한 꽃이 만발하는데, 6 월에는 분홍색 꽃송이의 이와카가미(암매과의 상록 다년초), 9 월에는 보라색 과남풀(*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등이 꽃을 피웁니다.

습원에는 히가시아즈마산 정상에서 약 1 시간,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 도로가에 있는 도리코다이라 등산로 입구에서는 약 30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리코다이라 습원

다카야마(해발 1,804m) 기슭에 위치하는 작은 늪지, 도리코다이라(해발 1,606m)는 사할린가문비나무, 분비나무, 구상나무 등의 침엽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6 월에는 작고 하얀 꽃잎을 가지며 중심부의 노란색이 특징인 진구르마를 찾아 보세요. 6 월부터 7 월에는 몇 년만에 한 번씩 소매혜초(*Veratrum stamineum var. gladrum*)가 한꺼번에 꽃을 피우는데, 1m 높이의 줄기 위에 피어나는 하얀 꽃이 습원을 가득 메웁니다.

이 습지대에는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 도로가에 있는 도리코다이라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짧은 산책로를 지나거나 우사기다이라에서 2km 코스를 통과하여 갈 수 있습니다.

쓰가다이라 습원

우사기다이라 주차장에서 도보 20 분 거리에 있는 쓰가다이라 습원(해발 1,658m)까지의 길에는 사스래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6 월에는 풀산딸나무와 큰두루미꽃이 지면 가까이에 군생합니다. 쓰가다이라 습원에는 수 년에 한 번씩 6 월부터 7 월에 걸쳐 소매혜초 대군락이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